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3월 25일(주일) 제1189호

십자가, 하나님의 의

2018
고난주간 십야예배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후 9시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
나라 위한 중보 및 금식기도, 미디어 금식, 십자가 목걸이

고난주간인 내일(26일)부터 '고난주간 십야예배'를 드린다.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후 9시에 드린다. 올해 고난주간 십야예배는 나라 위한 기도회로 집중한다.

고난주간 십야예배는 십자가 묵상(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행적 묵상), 성경읽기, 중보기도(침묵), 말씀선포,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금요일(30일) 예배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 솔로 찬송, 가상칠언 세리머니, 중보기도(침묵), 성만찬, 말씀선포,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설교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십야예배 실황을 전 세

계에 생중계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수요일 '나라의 치유와 회복', 목요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금요일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진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십야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시간 전후에 침묵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로 했다.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매일 하루 한 끼 이상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 헌금), 미디어 금식(드라마,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하지 않기)도 한다. 고난주간 동안 교회 로비

에는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18일) 예배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십야예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간을 의미한다. 고난주일(종려주일)부터 성토요일(부활 전날)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과 회개를 묵상하는 절기다.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에 고난주간 십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

4월 2일 서빙고 두란노홀

영성일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묵회’, ‘영성일기 단원별 핵심강의’, ‘영성일기 훈련 사례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실습도 병행된다. 목회자, 사모, 신학생이 대상이다.

문의: 031-753-2703, 070-4480-1591~2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

4월 15일까지 선착순 모집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를 4월 15일까지 선착순 160명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는 5월 30~31일 와쿠와쿠홀리데이홀(샷포로시민홀)에서 막 오른다. 5월 30일에는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샷포로(청년집회), 31일에는 리더십포럼(한일교류우친회)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룻연주자 송솔나무,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기타 연주자 안토니오 코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샷포로 현지는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까지 46개 협력교회가 모였다. 4월 15일에는 3차 꺾기대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집회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오카다 준이치 목사(러브소나타 샷포로 실행위원장)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 제작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미션홀에서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 1일 CGNTV 개국 13주년

3월 30일 ‘선교헌신예배’

4월 1일은 CGNTV 개국 13주년이다.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CGNTV 개국 13주년 행사에서는 사진 스튜디오, 다과 코너가 운영된다.

3월 30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관홀에서는 ‘CGNTV 개국 13주년 선교헌신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CGNTV 전 직원들이 방송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CGNTV 직원 2명이 각각 일본과 태국 선교사로 헌신한다.

/ 김영선 기자

전문가 기고

예술작품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

성화 ‘십자가에서 내리심’과 바흐의 ‘마태수난곡’

고난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 부활과 회개를 묵상한다. 수많은 예술가들도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곡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다. 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최정주 권사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한국예술
융합교육학회 회장)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성화(聖畵)가 있다.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작품이다. 많은 화가들이 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 중에서도 바로크 대표 거장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작품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십자가에서 내리심’

루벤스는 벨기에 출신 화가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린 사람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리심’ (1614년)은 동화 <플랜더스의 개>에 등장해서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 동화 <플랜더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있는 성모마리아 대성당에 루벤스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 동화의 주인공 소년 네로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성당에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리심’과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구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작품들은 은화 한 닢을 내야만 볼 수 있다. 커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어린 네로에게 은화 한 닢은 너무 큰돈이었다. 의지하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성당을 찾아간 네로는 꿈에 그리던 그림과 마주하게 된다. 네로는 사랑하는 개 ‘파트라슈’를 끌어안은 채 성당의 차디찬 바닥에서 숨을 거둔다.

네로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다. 이 그림은 거장 루벤스의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감각을 매우 잘 보여준다. 흰색 세마포와 예수님의 시신이 화면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놓여 있다. 내가 이 작품에 의미를 두는 것은 화면 속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동작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닥에는 십자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듯 예수님 머리에서 벗겨낸 피 묻은 가시면류관이 놓여있다. 십자가 위에서 90도로 몸을 꺾고 열심히 예수님을 내리는 두 명은 옷차림으로 보아 일꾼이라 생각된다. 그 밑으로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두고 있다. 제자 요한은 사다리에 한 발을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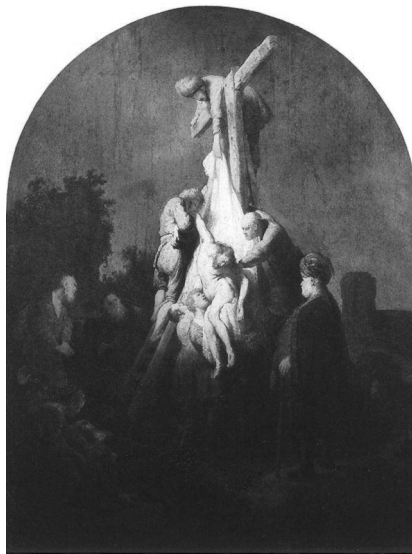
루벤스(왼쪽, 1614년)와 렘브란트(오른쪽, 1633년)의 ‘십자가에서 내리심’.

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받치고 있어 가장 눈에 띈다. 요한이 입은 붉은 색 옷은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강렬하다.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세 명의 마리아도 슬픈 표정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돌아가신 예수님조차 감독의 사인에 따라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움직임과 화려한 색채의 옷들이 역동감을 준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 동참하라는 것 같은 강렬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루벤스적인 특징이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다. 평생 자신의 자화상을 60여 장 그리며 깊은 자아성찰을 한 인물이다. 렘브란트는 독특한 빛의 사용법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림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특유의 빛과 부드러운 어두움을 신비롭게 표현할 줄 알았다.

렘브란트도 1633년에서 1651년까지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세 점이나 그렸다. 이 그림들은 루벤스의 작품을 모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제목의 비슷한 그림이지만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작품은 각기 다른 감동을 준다.

플랑드르보다 북쪽 출신인 렘브란트의 작품은 가톨릭적인 루벤스의 눈에 띄는 화려한 색채보다는 신교도들의 검소함에 걸맞은 매혹적인 빛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렘브란트의 신비한 빛은 주인공인 예수와 그를 싸는 깨끗한 세마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은은하게 비춘다. 사람들은 조금 떨



어진 채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루벤스의 그림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어둠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루벤스 작품 속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마리아와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어떠한가? 루벤스 작품에서의 근육질 예수님과 달리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힘없이 무너진 모습이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죽음을 훨씬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에게 시신을 내리게 하는 렘브란트 작품 속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루벤스의 작품에서 열심히 예수를 끌어내리는 모습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장면은 예수님을 품안에 안고 그를 올려다보는 제자의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 자화상 같은 모습이다. 죽은 예수를 직접 안음으로써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할 것을 조용히 말하고 있다.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 ‘마태수난곡’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 있다. 최고의 종교음악이라 해도 손색없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이다.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자세히 바라보며 바흐의 마태수난곡 중에서 맨 마지막 합창곡인 78곡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를 들어보기를 권한다.

바흐는 마태의 복음서 26장과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난을 바탕으로 장대한 서사시를 작곡했다. 마태수난곡은 총 78곡으로 3시간이 넘는 대규모 곡이다. 바흐 이후 잊힐 뻔한 이 작품이 빛을 보게 만든 이는 낭만시대의 작곡가 ‘멘델스존’이다. 바흐 연구에 열중했던 그는 100년 만에 마태수난곡을 무대 위에 올렸다. 그 이후 마태수난곡은 최고의 종교음악으로 매년 고난절마다 널리 연주되고 있다.

이 경건한 합창을 듣다보면 마치 우리가 그림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슬픔에 잠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바흐는 이 곡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무덤 속 당신을 향하여 편히 잠드시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 편히 잠드소서”라는 가사로 마무리 지었다. 마치 죄를 고백하듯이 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전율처럼 느껴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요 19:38-40).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많은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온데 간데없었다.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마리아들이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졌다. 그렇게 고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려놓았다. 그림에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인가?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일까? 단지 장례를 잘 치르고자 준비하는 자일까? 내 눈은 예수님을 직접 안아 내리고 있는 제자에게서 멈춘다.

고난주간에 보는 두 거장의 그림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하얀 세마포처럼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손으로 직접 안아 내리는 느낌을 준다. 예수님의 심정에 다다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인다. 예수님을 안은 비참함과 함께 깊은 내면으로부터 부활의 기대감이 비장하게 솟아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면 이 성화가 내 마음을 울린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능한 모든 영역을 통해서 설명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살펴본 비유들은 주로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함으로 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우리가 거둬야 할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즈니스 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려 할 때 ‘비즈니스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비즈니스 자체를 악하게 보는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즈니스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의 원리에 따라 비즈니스를 행하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얼마나 총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44절).

어느 소작농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밭이었습니다. 농부가 늘 하던 대로 밭을 가는데 쟁기 끝에 무엇인가 걸렸습니다. 땅을 파보니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소중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밭에 보화를 감추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보관할 곳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멸망한 이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도시(예루살렘)에 있던 적지 않은 재물들이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로마인들이 그것을 많이 파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유로,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금과 은과 귀한 가

구들이었다.”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 따르면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 귀중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한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누가 그것을 감추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이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날 저녁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려면 주인이 부르는 대로 땅값을 쥐고 무방했으니까요. 농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됐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소작농은 농부인데 사실은 농부처럼 보이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업가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45~46절).

당시 진주는 값진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가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주는 많은 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산 진주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진주를 취급하는 상인은 평범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곳까지 다니는 도매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미래에 값이 더 오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 얼마든지 간에 지불하고 구매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구매했습니다.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매한 것은 취미나 장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인 판단입니다. 진주의 가치는 더욱 오를 것이고,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상인은 마음이 흡족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가 아닌 미래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돌처럼 여겨지지만 미래에는 보석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발견한 가치에 담대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노력, 재물을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대담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와 추진 없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비즈니스가 불안, 염려,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물질적인 성공은 이뤘지만 삶이 피폐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소작농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고, 상인은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차이점은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고, 상인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니고 데모처럼 애써 구하고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내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등 많은 의심과 고민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루기에 보면 루이 생존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그 밭이 나중에 보아스의 밭이 됩니다. 루이 시어머니를 우연히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혹은 노력해서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씨앗이 땅에 숨겨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까닭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정치부터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 믿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된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발견한 가치에 대담하게 투자해야

둘째, 발견한 가치에 대해 대담하고 결단력 있게 투자해야 합니다. 농부와 상인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판 이유는 값진 보물과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에 대한 반응이지, 발견하기 위해서 재산을 판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모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흔쾌히 팔 수 있었습니다. 밭에 있는 보물을 소유하고 싶었고, 진주의 가치를 얻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판 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투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만일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판 행위는 자신의 재산보다 값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현대인의 정신건강

오늘도 불안한 당신을 위하여!

21세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 ‘불안해소’
직면하고, 도움 요청하고, 신앙공동체에 소속돼야

21세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는 ‘불안해소’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많은 현대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숙명처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각양각색의 이유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수준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 넘어 과한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기독교인들은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사례를 바탕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불안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한민국을 ‘불안 공화국’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새학기 증후군’을 앓고 있고,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직장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92%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업(無業)’ 상태에 놓일까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불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인들은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불안(不安)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를 가리킨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기분 또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불안은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신체적으로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떨림과 땀 흘림, 설사, 근육의 긴장 등도 나타난다.

‘새학기 증후군’을 아시나요?

3월, 새학기가. 설레고 반가운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각급학교에서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학기 증후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제과 전문업체 페레로가 ‘킨더초콜릿(Kinder Chocolate)’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매일아이닷컴 회원 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58.7%가 ‘자녀가 새학기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B군은 교실 앞에만 가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욱신거린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방만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진다.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담임교사가 바뀌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수준이다. 친구관계, 담임선생님과 교과의 관계, 학업에 대한 불안 수준이 지나치면 두통, 요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틱증후군을 보이기도 한다.

미취업자와 직장인들이 느끼는 불안

2년째 취업준비중인 Y형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매순간이 불안하다. Y형제가 지난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도 아니다. 높은 어학점수를 획득했고, 국제적인 행사

대한민국의 불안은?

초·중·고

새학기 증후군

미취업자

미래에 대한 불안

직장인

무업(無業)의 불안

노인

모든 영역이 불안

봉사활동도 했다. 대기업 인턴도 했다. 다양한 스펙을 쌓았지만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가끔은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못했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요. 취업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고 답기도 해요.”

학교를 졸업해도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 4,770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태진단을 했는데 정서적 고위험군(‘조기정신증’ 혹은 ‘자살’ 위험을 가진 사람)과 잠재적 위험군 10.8%,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2%, 정서적 어려움이 구직 활동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6% 등으로 미취업 청년 33.6%가 정서적 치료가 시급했다.

취업을 해도 문제다. 불안하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무업(無業)사회’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 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잡코리아가 우리나라 직장인 7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92%가 무업상태에 놓일까봐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이직이 너무 어려워져서(48.8%), 실제 무업상태로 생활해본 경험이 있어서(36.4%), 취업시장과 경제가 나빠진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31.3%), 주위에 무업 상태

로 생활하는 지인들이 많아서(30.6%), 정년보장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25.2%) 등이었다.

모든 것이 불안한 노인들

C할머니는 건강염려증이 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아야 한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큰 병원을 찾아간다. C할머니 방에 있는 커다란 강통에는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노인들은 불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모든 영역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3)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불안장애 진료환자가 9,818명인데 60대 이상이 5,189(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들은 직업에서의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친구와의 이별 등 가장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후 준비 수준, 건강 상태, 외로움과 고독함 등도 불안을 가장 시키는 요인이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

불안은 대상과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정서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거나 순응한다.

그러나 불안을 극복하려면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불안이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안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먼저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삼하 15:14) 즉시 피난을 갔다. 그 덕분에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불안은 신앙생활의 경건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직면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시 3:5-6).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위안을 얻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불안을 나누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다. 불안과 직면하려고 할수록 불안이 줄어든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순응하고 회피하면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불안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고, 짐을 나눠 댈 수 있는 신앙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불안극복에 도움이 되는 예배와 공동체

- 월요어노인팅집회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비전홀
- 금요회복예배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분당
-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서빙고 선교관 101호, 양재 트리티니 강의동 304호
- 상담센터: 서빙고(선교관 지하 1층), 양재원형 커피숍 안쪽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불안극복’ 솔루션

은혜(Grace), 기쁨(Joy), 평강(Peace)



하혜숙 교수
(강동 온누리교회,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현대인과 불안이라는 단어처럼 서로 잘 어울리는 짝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불안에 대해 들여다 보자. 우선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무엇일까? 그렇다.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다. 불안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면 두려움은 그 아래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겪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9-10).

우리의 삶에는 늘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전공자인 내가 처음 상담을 배울 때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무기력하다고만 생각했다. 우울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주된 증상은 말수가 적고 느리고 의기소침한 것이다. 멍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우울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기력 밑에 엄청난 분노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물결조차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보이는 우울함 아래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폭발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를 내는 사람을 볼 때면 그들의 거친 말투와 행동 때문에 그들이 힘이 많은 사람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 행동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서 안에 있는 정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마음의 작용과 뇌과학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불안 행동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음의 작용은 곧바로 뇌과학과 연결된다. 요즘 학문의 트렌드는 단연코 ‘뇌(brain)’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뇌의 먹이는 무엇일까? 뇌는 무엇으로 성장할까? 정상적인 뇌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



까? 답은 간단하다. 뇌가 움직이려면 포도당이 필요하다. 흔히들 “당 떨어져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뇌에 보이는 물질적 측면의 연료가 포도당이라면 뇌의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측면의 먹이는 무엇일까? 바로 ‘기쁨(joy)’이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일까? 이 기쁨은 관계 속에서 값없는 호의를 받을 때 생기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충족된다면 뇌는 기쁨으로 인해 잘 기능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뇌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우리 뇌의 알람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무섭고, 두렵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게 된다. 즉, 뇌가 두려움에 기초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심리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은 관계 단절로부터 온다 따라서 문제가 무엇이든,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되었든 문제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된다. 바로 은혜(grace)다.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직접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그저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joy)이다. 은혜 뒤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질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뇌가

적 장애는 이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님의 은혜(grace)는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뇌는 도파민(dopamine)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된다. 누군가 나를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가장 사랑해 줄 때 우리 뇌는 6분의 1초 만에(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흔히 말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접하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따라서 기쁨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기쁨은 언제나 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기쁨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올림픽에서 한국 팀이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매우 좋아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

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은혜는 내가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표정과 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 뇌 속에서 실제적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문제해결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 평강(Peace)이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고 나면 다음으로 세로토닌(serotonin)이 분비된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즉 기쁨과 평강은 은혜를 기반으로 리듬을 타듯 서로 주고받기를 한다. 기쁨이 높은 에너지 상태라면, 평강은 잠잠한 상태로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 것이다. 즉,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정과 신체가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가라앉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shalom(shalom)’이라고 부른다. 현대인들은 이 잠잠함을 찾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 방법을 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쁨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강 또한 관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은혜를 통해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셨다. 태초부터 우리 뇌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장 잘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결국 현대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실질적으로 뇌의 신경전달 체계를 와해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 얼마나 복잡하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더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리듬을 오가는 사이에 우리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어느새 떠나가고 내 몸과 마음에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Grace)와 기쁨(Joy)과 평강(Peace)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빌 1:2).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십 세운다!

도곡교육관 창립 8주년 ... “칭찬 받는 예배처소”



도곡교육관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지난 18일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이하 도곡교육관) 창립 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도곡교육관은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2010년 3월 14일 창립했다. 차세대 양육에 집중한 도곡교육관은 창립 8년 만에 예배인원이 2,600명이 넘을 정도로 부흥했다. 현재 성인예배 2부, 차세대(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예배 2부를 드리고 있다. 대학청년부 갈렙공동체와 영어예배의 예배처소이기도 하다.

가장 교회다운 예배처소

도곡교육관은 교회 간판이 없다. 하지만 가장 교회다운 예배처소다. 도곡교육관에서 만난 성도들의 표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주차봉사팀, 안내팀, 러빙핸즈팀, 차세대 교사와 어린이들 모두가 미소천사다. 도곡교육관은 가족 같은 신앙공동체가 분명하다.

도곡교육관은 2010년 3월 14일 숙명여고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숙명여고 인근에 사

는 서초C공동체 성도들을 중심으로 정착했다. 그 이후 강남A공동체, 강남B공동체, 강남C공동체, 강남D공동체가 도곡교육관을 섬겼다. 올해부터는 강남B공동체, 강남C공동체와 함께 도곡공동체도 섬긴다. 도곡공동체는 강남B공동체에서 뻗어 나온 새로운 공동체다. 2년 전부터 도곡교육관에 오는 새신자가 300명씩 늘었는데 그들을 집중적으로 품고 양육하기 위해서 신설됐다.

도곡교육관은 사랑거리가 많은 곳이다. 예배처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으뜸이다. 그 선봉에 주차사역팀이 있다. 도곡교육관 주차사역팀은 초창기부터 ‘예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섬김도 예배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

주차사역팀 정형룡 집사는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로 섬기니까 늘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다. 주차사역팀의 아름다운 섬김은 도곡교육관 성도들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도곡교육관에는 주차사역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성도는 있어도 한 번만 섬긴 성도는 없

다. 주차사역팀원들 간의 화합과 협력, 원활한 소통이 그 원동력이다. 또한 주차사역팀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며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다. 주차사역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 얼마 전 도곡교육관을 찾아온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들이 수없이 오가는데 어쩔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저도 한 번 다녀볼랍니다.”

도곡교육관 러빙핸즈팀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 받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도곡교육관이 부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 도곡교육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 숙명여고 강당을 비롯한 시설들의 청소 상태가 매우 나빴다. 머리카락과 먼지가 뒤엉켜 나뭇잎 같고, 실내공기도 무척 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김윤식 집사,故 이충구 집사, 이호영 집사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도곡교육관 러빙핸즈의 모태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바닥과 창문 등 예배당 곳곳을 쓸고 닦았다. 내 집처럼 쓸고 닦았더니 탁했던 공기가 맑아지고, 강당도 깔끔해졌다. 분위기마저 화사해졌다.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강당 청소만큼은 도곡교육관 러빙핸즈팀에게 맡기고 있을 정도다.

차세대를 위한 예배처소

도곡교육관은 차세대를 위한 예배처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차세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도곡교육관을 창립한 배경에도 차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 마련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예배장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영

어예배 등이 함께 신설됐다. 현재 도곡교육관에서는 총 8개 차세대 부서(영아부, 예꿈1·2부, 유년부, 꿈땅1·2부,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도곡교육관 차세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예꿈(유치부)보다 꿈땅(초등부), 꿈땅보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인원이 많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세대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편적인데 도곡교육관은 다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차세대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매력적이다.

지리적인 특성도 한몫했다. 도곡교육관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1번지로 손꼽히는 대치동과 양재동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도곡교육관을 창립할 때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품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도곡교육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1관인 숙명여자고등학교 강당과 교육관에서는 성인과 차세대들이 예배를 드린다. 2관인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강당에서는 대학청년부 갈렙공동체와 영어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갈렙공동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청년들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에는 창신1동 쪽방촌을 10년 동안 꾸준히 섬긴 공로를 인정받아 창신1동 주민센터로부터 구의장상을 받았다.

도곡교육관에 대한 성도들의 애정 또한 깊다. 윤경희 권사는 “도곡교육관 만큼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 없다”고 했고, 이해달 장로는 “도곡교육관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예배처소”라고 말했다.

문의: 02-570-7444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목회칼럼



김상수 목사
(도곡공동체)

도곡교육관은 8년 전 숙명여고 강당에서 ‘양재 온누리 도곡교육관 예배(extension worship)’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작년부터는 중대부고 강당에서 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도곡교육관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차세대’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는데 벌써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교회를 알리는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도곡교육관 예배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은 도곡교육관의 여덟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 성숙한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다. 8년을 한결같이 도곡교육관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서초C공동체 권사님의 간증

을 들은 적이 있다. 서초C공동체를 중심으로 도곡교육관을 섬길 때부터 지금까지 도곡교육관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고 계신다.

둘째, 새가족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도곡교육관은 간판이 없기 때문에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다. 도곡역 1번 출구 앞이라는 근접성과 학교운동장을 주차 장소로 쓰는 이점도 있다.

셋째, 주차사역이 친절하다고 소문났다. 4년 동안 도곡교육관 새가족반을 섬기면서 교회 처음 나오신 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차사역팀의 친절이다. 팀원들은 예배시작 2시간 전에 모여 뜨거운 찬양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짧은 메시지를 듣는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주차사역팀원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차를 30cm간격으로 주차시키더라도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

도곡교육관의 여덟 가지 특징

넷째, 러빙핸즈의 클린 무브먼트(clean movement) 덕분이다. 도곡교육관에는 자발적 섬김이 많다. 사실 도곡교육관 예배장소가 원래부터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다. 학교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실내공기가 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매주 주말마다 러빙핸즈팀이 내 집처럼 청소한 덕분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다섯째, 행복한 불편함이 일상이다. 도곡교육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성숙한 분들이 많다. 불편할 법도 한데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늘 겸손하다.

여섯째, 팀 사역이 돋보인다. 도곡교육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벽돌을 쌓듯 하나씩 이뤄 온 열매다. 8년 동안 많은 사역자와 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빙고 챔버팀이 도곡교육관까지 와서 도와주었

고, 8년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소속 공동체들의 찬양팀, 챔버, 밴드팀, 예배안내, 봉사, 헌금, 계수, 새가족, 권사기도회, 성찬팀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곡교육관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특별한 장소다. 온누리교회 팀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도곡교육관이다.

일곱째, 친밀한 교제가 있다. 도곡교육관에 오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편안하게 담소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여덟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도곡교육관에서는 매주 주일 이러한 성장과 부흥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도곡교육관은 앞으로도 새가족들을 잘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복음화와 차세대를 잘 섬길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는 도곡교육관 3부 예배가 신설될 것 같다.

특집 CGNTV 개국 13주년 1.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2. 한 영혼을 위해 '더 가까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맞춤방송

170여 개국에서 24시간 365일 방송

CGNTV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선교사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개국한 CGNTV가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맞춤방송으로 우뚝 섰다. CGNTV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7개 지사(미주, 일본, 대만, 태국, 아랍, 인도네시아, 홍콩)에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콘텐츠도 탁월하다. 각 나라의 종교, 문화, 정서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더 멀리 뻗어 나가고 있는 CGNTV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CGNTV 해외지사 제작현장(시계방향으로 일본, 대만, 아랍, 태국).

미주 CGNTV는 2005년 8월 개국했다. 그 모태는 LA와 뉴욕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회의 성장을 돕는 선교교육 방송이었다. 지금은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등 부분적으로 다국어 방송을 송출하면서 현지인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미주 CGNTV 콘텐츠가 디지털 시장과 채널로 송출이 되면서 현지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미주 CGNTV는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와도 동역하고 있다.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와 함께 2년제 위성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00명이 수료했고, 재학생이 1,000명에 이른다. 2009년부터는 미주 CGNTV 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성되어서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미주 CGNTV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주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10분 메시지', 미국 이민세대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을 담은 'THE 부르심', 미국 목회자들이 출연하는 영어 큐티 '리빙라이프' 등이다.

일본 CGNTV는 2006년 10월 도쿄에서 개국

했다. 이듬해 2월에는 오사카 지사를 설립했다.

일본 CGNTV는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일본 복음화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러브소나타 집회와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본 47개 현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1,800개 교회, 2,500여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일본 CGNTV에 출연하면서 교류의 장(場)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오로지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결과 일본 CGNTV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지사 김창호 국장은 "CGNTV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다"며 "일본 CGNTV를 통해 일본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CGNTV는 차세대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소년 전도를 위한 'You are special', 차세대 신앙성장을 위한 '성서의 마을', 문화 프

로그램 '책과의 여행' 등을 방영하고 있다.

대만, 태국, 홍콩 넘어 중국까지 '중화권, 불교권 선교' 중심에 서다

대만 CGNTV는 2008년 6월 개국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타이베이에 제작센터를 두고 대륙 선교의 꿈을 꾸고 있다. 대만 CGNTV는 방송 현지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홍콩 창세TV, 대만 신연관TV 등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면서 중화권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문 자막 방송, 간체 제작물, 더빙 프로그램 등도 만들고 있다. 또한 성광신학교와 연계해서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한 신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교회를 위한 다양한 제자양육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대만 CGNTV의 주요 프로그램은 '말씀의 샘', '공중신학강좌' 등이다. 중국 본토에서 선교 활동이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대만 CGNTV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태국 CGNTV는 2010년 11월 개국했다. 복

음화율이 0.5%에 불과한 태국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 비전이다. 이를 위하여 태국 CCT 교단과 협력해 지난해 IPTV를 개국하고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태국 CGNTV와 MOU를 체결한 현지교단 CCT의 수라폰 총무는 "미디어 선교는 빠르고 강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맞춤형 미디어 선교를 통해 청년들이 기독교와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사람들은 모바일기기 사용량이 매우 높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SNS 플랫폼을 활용한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태국 CGNTV SNS 플랫폼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60 Seconds', 여행 프로그램 'Holy travel',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간증을 다룬 'The 12' 등을 선보이고 있다.

홍콩 CGN World는 2015년 8월 설립됐다. 대만 CGNTV와 함께 중화권 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은 인구와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고, 중국 본토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홍콩 CGNTV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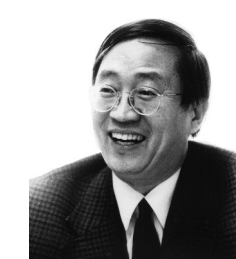
중동과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도 '무슬림 복음화 선봉에 서다'

아랍 CGNTV는 2012년 3월 개국했다. 아부다비에서 시작해서 무슬림의 본거지인 중동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다. 종교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중동에서 CGNTV는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선교 도구로 손꼽히고 있다. 아랍 CGNTV는 글로벌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지 미디어 사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CGNTV 지사 개척도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 CGNTV는 2014년 9월에 개국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자리를 잡았다. 인도네시아 방송과 협력해서 인도비전 라이프 채널과 파푸아 자야 TV에서 매일 1시간씩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 87%가 무슬림이다. 기독교 인구는 6%에 불과하다. 미전도종족과 다름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인도네시아 CGNTV가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말씀강해, '나는야 주의 어린이' 등의 한국방송에 현지어 자막을 입혀 내보내고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김명환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다비 성립대표
승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정통 신학자들과 퀴어 신학자들의 동성에 관점이 왜 다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같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과 세계관의 기원이 되는 성경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로 본다. 즉 문화적 해석에 따라 동성애를 시대적 문화적 방식으로 보면서 성경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정통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감 된 계시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으므로 “동성애는 가증하다”는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 이슈는 단지 개인이나 교단의 신앙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시대의 성(性) 해방의 물결에 휘말려 정체성을 상실하느냐 하는 교회의 순결성과 신자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삶과 윤리 기준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대를 초월해 모든 종족과 문화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인간 삶과 윤리의 기준이다. 그런데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책으로 보고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문장은 성경에 대한 퀴어 신학자의 견해이다

“성서는 인간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은 책이지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과 지식을 통해 알려지고 표현되고 기록되었다. 시대와 지역의 종교 문화적 제약과 한계 속에서 성서의 저자들은 성서를 썼다. 따라서 성서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 우리는 성서에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와 시대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의 편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편견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유롭고 책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퀴어 신학은 위의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문화적 편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은 그 시대와 지역의 종교문



존 마틴(John Martin)이 그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1852년).

화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절들은 2-3천년 전 시대와 지역의 종교문화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정통신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성경관은 자유주의적 성경관으로써 성경을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문화적 편견을 벗어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의 성경관과는 다르다.

정통 개혁신학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며, 비록 문화적 옷(고대 히브리어와 중동 아시아의 문화)을 입고 있으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윤리적 규범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다른 신 경배 금기, 우상 숭배 금기, 하나님 이름 훼손 금기, 안식일 지킴, 부모 공경, 살인 금기, 간음 금기, 도둑질 금기, 거짓증거 금기, 탐욕 금기 등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의식법(영적례) 등은 문화적인 것으로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그 영적 의미는 오시는 그리스도의 화생을 그림자로서 지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정통 개혁교회는 성경에 인간의 시대적 편견과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록 2-3천년 전 성경의 저자들, 모세나 선지자들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썼다 할지라도, 비록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했으나 성경의 교훈은

시대적 문화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고 믿는다. 오늘날도 청교도 순례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미국의 남부 주에서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고자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후 예인 역사적 개혁교회는 2-3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십계명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예배 시간에 읽고 지키기를 다짐하고 있다.

로마서 9장 17절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등을 보면 성경이 의인화(擬人化)되어 간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자 그분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만이 최고, 최선, 최종의 권위를 지닌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이야기 해석

퀴어 신학은 “동성애 비난과 정죄란 2-3천년 전 고대사회의 종교문화적 편견과 오류에 입각하고 있다”고 다음같이 주장한다.

“성서에는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고대 사회의 종교문화적 편견과 오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성서구절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2-3천년 전 고대 사회의 종교문화적 편견과 오류를 21세기 인간과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고 성숙한 고대사회의 언어를 사용했으니 성경의 교훈은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서의 구절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성서구절에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과 교양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퀴어 신학의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동성애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라고 다음같이 왜곡한다.

“소돔 이야기에 대한 현대 해석자들은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적인 동기가 있다고 잘못 해석하였다. 롯의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사람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돔 사람들은 성적인 요구를 만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향한 우월성과 힘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가졌다. 그렇기에 롯의 딸들은 이러한 욕구의 대체자가 될 수 없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손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통 개혁교회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기사(記事)는 동성애 사건을 보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는 구절은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 행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끌어 내려 상관하리라”는 말은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롯이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창 19:7).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창 19:8b)고 간청하는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롯은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딸들을 내려주겠다(창 19:8a)고 타협하고자 한다. 8절에 롯의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Yadah)’는 구약에서 948회 사용되었는데, 창세기에서 사용된 12회 가운데 10회가 성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본문에서는 성교(性交, sexual intercourse)를 뜻하는 용어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롯은 소돔 고모라 불량배들의 동성애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성애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은 소돔 고모라 불량배들이 동성애 성적으로 결합하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성폭행을 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문은 불량배의 이러한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런 범죄인 것을 고발해주고 있다.

퀴어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16장 49-5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가 나온 다음에 또 한 가지 죄인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열거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의하면 동성 간 성교는 가증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죄 때문만은 아니라 동성애라는 가증한 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유다서 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other flesh)’을 따라 가다가 멸망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색(色)이란 동성애를 말한다.

사사기에 기록된 불량배들의 동성애 기사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사 19:22)는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런 범죄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동성애는 천부적인 남녀 간의 이성애 성(性) 질서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정성인(이성애자)인 성 다수자들에게 의해서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비난은 ‘도적질’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창조 질서로써 주어진 성적 질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타당하다. 남녀 간의 이성애가 바른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올바른 성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써 현재에서는 변하

지 않는다.

레위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 해석

창세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과 일치한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들은 둘 다 명료하게 동성애 금기 명령을 말해주고 있다. ‘가증하다(토예바)’는 표현은 성적인 죄들이 가증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레 18:26-27, 29-30). 동성애 금기사항에 대하여 ‘가증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레 18:20; 레 20:13)은 주

“순리(順理) 이성 간의 성적 결합을, 역리(逆理)란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한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다 동성애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목할 만하다.

퀴어 신학자 보스웰(J. Boswell)은 가증하다는 용어가 강간이나 도둑질 같은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거나 월경 같이 제의적인 부정(不淨)으로 해석한다. 퀴어 신학자 버드(P. A. Bird)도 ‘가증하다’는 용어는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제의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는 정통신학자 배정훈이 다음같이 반박하는 바 같이 성경비판에서 나오는 제의적인 부정과 인간의 윤리적인 범죄를 혼동하고 있다.

레위기 1-16장(제사법전)과 17-26장(성결법전)이 언급하는 부정(不淨)은 제의적인 부정(不淨)이다. 예컨대 부정(不淨)한 짐승을 먹거나, 산모가 아이를 낳거나,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不淨)하게 되는 일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윤리적(倫理的)인 부정(不淨)이 아니라 목욕이나 제사를 통하여 정(淨)하게 회복되는 제의적(祭儀的) 부정이다. 이에 반해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가증하다고 금기하는 윤리적인 부정(不淨)에 해당하는 죄는 제의적인 부정(不淨)이 아니라 “죽일지니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代價)로 바쳐야 하는 죄다. 동성애는 살인처럼 가증한 것으로 백성들이 더럽히고, 그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지고, 나이가 땅이 거먼을 토해내는 형벌로 이어지

는 죄다(레 18:24-30; 20:22-27). 동성애는 목욕이나 제사를 통하여 씻어 낼 수 있는 제의적 부정(不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의 성질서에 대한 위반으로 가증스러운 윤리적인 부정(不淨)이요 죄 된 행위다.

이성애가 바른 성(性) 질서이고, 동성애는 이성애의 변태(變態)다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런 죄악이라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가증스런 죄가 된다. 하나님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시는 인격적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레위기, 사사기에 나타난 동성애 판단은 결단코 고대사회의 종교 문화적 편견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이다. 퀴어

은 인간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도록 다른 동성(同性) 존재 아담을 짓지 아니하시고 이성(異性) 존재 하와(여성)를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창 2:22).

이는 최초의 남녀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인류가 저들이 이룬 결혼에서 번식하도록 한 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원죄 타락 이후 6장에 성적 타락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이라”(창 6:2-3).

인간의 성적 타락은 이성애 타락을 넘어서 동성애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6장에 언급된 이성애 타락은 부부가 아닌 남녀 다자(多者) 간의 성적 결합(polyamory)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인간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영성을 상실하고 육체(basar, flesh)가 되어 버렸다. 동성애 타락은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 주민의 동성애 악(창 19:5)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시대 사람들의 동성애를 다음같이 정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순리(順理)란 자연(the nature)에 따른 성의 사용(the natural use of the sex)을 말하는 것이다. 순리란 이성(異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며, 역리(逆理)란 동성(同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거슬리는(against the nature) 성의 사용이다. 이러한 역리적 사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the shameful)ness)”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로 간주된다. 동성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 중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되고 성결되며 사랑받을 수 있다.

(계속)



4월 1일부터 청년희망 공간 이름이 한성대학교에듀센터로 이전한다.

청년희망 공간 ‘이룸’ 한성대에듀센터로 이전

Pole2, 길, CH PLUS공동체 예배 장소 및 시간 변경

4월 1일부터 청년희망 공간 ‘이룸(E-Room)’이 한성대학교에듀센터(종로구 창경궁로 254)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대학청년부 Pole2공동체, 길공동체, CH PLUS공동체 예배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된다. Pole2공동체 주일 오전 11시, 길공동체

주일 오후 2시, CH PLUS공동체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한성대에듀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성대에듀센터는 2층 분당, 3층 순모임과 홀리스타, 4층 새가족모임 장소로 사용된다. ‘CH PLUS공동체’는 ‘CH630공

동체’의 새 이름이다. 예배시간이 변경되면서 공동체 이름도 바꾸었다. PLUS는 기도(Prayer), 자유(Liberty), 연합(Unity), 섬김(Service)의 약자다. 문의: 02-3215-3744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온누리교회 화재대피훈련 실시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서두르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주세요.” 지난 18일,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주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서 연막탄이 터지자 화재경보가 울리며 안내방송이 나왔다. 성도들은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장으로 이동했다. 성도들이 탈출하는 동안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이 출동해

서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대피훈련이 끝나고 소방관들이 직접 성도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황우진 팀장(용산소방서)은 “화재 대처법에 익숙해야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서 “평소에도 화재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호석 성도(서대문공동체)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비상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함께 ‘다민족 예배 비전’ 이루자!”

인천, 송도 인근 국제대학교 대학생 초청 예배

인천 온누리교회가 대학생들과 ‘다민족 예배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18일, 인천 온누리교회가 송도 인근 국제대학교 재학생을 초청해서 ‘WIN THE CAMPUS IN SONGDO’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예일대학교 가스펠 콰이어가 특수를 하고,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가 설교했다.

이날 서경남 목사는 “다민족 예배 비전을 이루는데 송도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이버 형제(예일대)는 “모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민족 예배 비전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3월 세례자명단

서빙고	유아
유아	권준우 160919
권예성 160326	권인호 조상은
권준오 김은정	권화평 170607
김주연 160409	권오영 정인에
김진환 박차라	김주담 160503
김휘율 170315	김가람 사미영
김효석 김세은	박주원 160914
문예원 170411	박성진 이지영
문영재 고은미	백이경 160726
박도윤 161006	백선우 윤선영
박종민 홍주리	백이재 160726
박라온 160503	백선우 윤선영
박삼재 김지성	서아인 170406
박윤우 160422	서창배 구혜란
박사무엘 윤선주	오주환 160312
박주아 160419	오성진 임명신
박정민 김경란	위하민 161204
양희은 170325	위재천 김민정
양정모 김지현	유래아 170907
유하진 170306	유민상 노유미
유기성 이보람	최서우 170902
장시은 170620	최진 장지선
장신우 신혜경	
최시윤 161107	〈대학청년〉
최경석 이정은	요셉

열린새신자예배

김용건 850812	하늘
김예진 890112	윤진호 960610

양재

김영근 790828	입교
김종형 750413	최예영 990214
박지희 890802	
신희순 660507	J4U
엄용덕 791026	강호균 870416
조용남 380220	
허라임 770929	

남양주 이주민 전도집회 개최

4월 7일 오후 7시 남양주 본당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4월 7일 오후 7시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이주민들이 교회에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오후 5시 30분부터 서를 운영한다. 이주민 전도집회는 식사교제, 연합예배,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자 축하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이주민 복음화를 위하여 매년 2회씩 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치과의사와 다문화 교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의료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평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요일 다문화 교실에서는 오카리나 교사, 리코더 교사, 난타 교사, 아동 교사,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3937-3927

양재 상담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오르프 음악치료와 ‘마음성장’ 부모교육

‘오르프 음악치료를 통한 마음의 쉼 갖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강사는 이원선 상담사(기독교 가족치료 전문상담사)이다. 참가 신청은 4월 4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마음성장’ 부모교육 집단상담도

실시된다.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성장’ 부모교육 집단상담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법을 가르쳐 준다. 강사는 고주식(이음부모교육전문가)이다.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문의: 02-570-7536~7

147기 두란노아버지학교 개강

3월 31일 양재 화평홀

147기 두란노아버지학교가 3월 31일 개강한다. 147기 두란노아버지학교는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가정의 역할’과 ‘가정경영법’을 배울 수

있다. 대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30일까지다. 참가신청은 전화(010-5038-4111), 홈페이지(www.father.or.kr),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5038-4111

19기 프리덤스쿨 개강

19기 프리덤스쿨이 4월 7일 개강한다.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프리덤스쿨에서는 ‘정체성(오리지널디자인)’, ‘견고한 진’, ‘

4R기도’, ‘수동성’, ‘두려움’, ‘거절감’, ‘수치심’, ‘분노’, ‘동반 의존’, ‘양자의 영과 고아의 영’, ‘용서의 필요성과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8538-5994

/ 권찬송 기자



샷포로 기·도·제·목

- 3월 26일(월)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 3월 27일(화) 일본 교회와 실행위원들이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갖기를
- 3월 28일(수) 일본의 다음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도록
- 3월 29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출연진이 성령 충만하도록
- 3월 30일(금) 모든 스테프와 봉사자들에게 샘솟는 생수 같은 기쁨이 넘치길
- 3월 31일(토) 5월 30-31일 행사, 낱씨, 교통, 음식,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길
- 4월 1일(주일) 집회를 통해 화심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 젊은부부학교 46기 간증



/ 김유경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결혼생활 10년이면 가정이 안정을 찾고 부부싸움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 대화를 하면 다툼으로 끝날 때가 더 많았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할 뿐이었다. 부부상담도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대화도 점점 줄었다. 그때 젊은부부학교 전단지 보고 곧바로 신청했다.

젊은부부학교 첫날,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멋진 나비넥타이를 맨 스태프들이 활짝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 덕분에 마음이 급세 편안해졌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자연스레 좋아졌다.

조모임, 나눔,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다른 부부들도 우리처럼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가평에서 보내는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다. 주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자녀부 선생님들께 감사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눔 속에서 부부관계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도 맞추었다.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보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내 준 ‘칭찬하고 배려하기’ 숙제가 기억에 남는다.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내 상처만 바라보고, 아파하고, 분노했던 마음이 이제는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니 다들 일이 없었다. 다정하게 대화하며 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의 표정도 달라졌다. 행복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감사가 절로 나왔다.

겨우 4주였다. 그것도 주말 몇 시간으로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의심했었는데 나의 착각이었다. 언제나 옳으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셨다.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에 감사드린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조장님 부부와 스태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문의: 010-7377-3913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안다옥 선교사(중앙아시아 A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A국에서 날마다 주님 보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서 깨끗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덕분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B도시에 사는 V는 목이 아파서 다른 나라 병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같은 기적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V는 마음먹고 성경필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G도시에 사는 K의 이야기를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4박5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K가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기도했었는데 응답되었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간다던 K가 수련회 당일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J는 이모 CS의 집에 놀러왔다 예수님을 구

주로 영접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도 담대해졌습니다. 복음 팔찌를 들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CS의 아빠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어 감사합니다. 수련회 내내 한쪽에 앉아 지켜보기만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에 아이들과 함께 성구를 암송하고, 처음 해보는 QT 시간에는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E도시에 사는 S는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출근해서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과도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 사역자 E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숙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새 비자 발급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제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예수사랑부 캠프 간증



/ 김자영 교사(서빙고 예수사랑부)

기대보다 더 행복했던 캠프

지난 3월 17~18일 예수사랑부가 강릉으로 캠프를 다녀왔다. 몇 달 전부터 목사님과 임원진들이 공을 들여 준비한 캠프였다. 나는 올해부터 예수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과 함께 가는 첫 번째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드디어 예수사랑부 캠프를 가는 날. 날씨가 얼마나 화창했는지 모른다. 그 좋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사랑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도 나처럼 들떠있었다. 단체로 맞춘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캠프 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평안함과 행복이 묻어있었다.

첫 행선지는 ‘숲체험마을’이었다. 좋은 공기과 맛있는 밥, 평화로운 산책과 운동,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사진도 찍으며 여유를 누렸다. 숲체험도 재미있었다. 숲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등산을 했다. 나무도 보고, 잣도 까보고, 풀피리도 물어보았다. 이러한 오감활동은 서울에서는 결코 해보지 못했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과 손에 손 잡고 산을 오르고 내리며 찬양도 부르고 꽃노래도 불렀

다. 무궁화 노래를 스무 번 넘게 불렀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과 드리는 예배는 말로 표현 못할 귀한 경험이었다.

예수사랑부 청년들이 기대했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도 갔다. 경기장 규모가 매우 크고, 관객들의 응원도 엄청났다. 예수사랑부 청년들도 함께 어우러져 열띤 응원을 보냈다.

예수사랑부 캠프는 세 가지 의미에서 감사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예수사랑부 청년들과 함께 한 야외활동이었다는 점, 두 번째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결승전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 세 번째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번 캠프에 함께 했다는 점이다. 기대보다 더 행복했던 캠프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특별히 남편이 부족한 일손을 보태줘서 정말 감사했다.

나는 배워야 할 게 많은 초보 선생이다. 그러나 예수사랑부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사랑부 청년들 안에, 예수사랑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한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유하진, 부: 유기성, 모: 이보람

첫 단추를 끼우다

하진이의 유아세례를 어렵게 결정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하진이 인생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중학생 100명 중 3명 정도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다.

창조와 진화, 역사와 신화, 동성애와 이성애, 신권과 인권 등 빠르면 3~4살 늦어도 8살이면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을 만날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성급하게 답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되었다.

대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나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걱정이 늘어갔다.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진이의 유아세례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 아내와 결혼예배를 드리고, 하진이가 우리에게 찾아온 날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봤다. 기쁘고, 슬프고, 신나면서도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

랐다. 그중에서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진이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하진이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다.

아내와 하진이는 뱃속에서부터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던 반면 나만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유아세례는 그 계획의 첫 단추인 만큼 내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다.

세례는 하진이가 받는 것이지만 유아세례를 통해서 내게도 다시금 세례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 은혜로 주님과 나의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하진이와 함께 나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걱정도 되지만 그때마다 오늘 채웠던 첫 단추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로칼럼

안전은 나로부터 온다!



박구병 장로
(관악금천공동체, 안전
관리분과위원장)

포항 지진, 제천 화재참사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안전 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안전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실 행위위원회에서는 주차사역팀, 예배사역팀, 선교재단과 함께 두 달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18일 ‘모의소방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예배가 끝난 다음 모의소방대피훈련을 시작했다. 용산소방서에서도 이번 훈련에 협조해 주셨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간단한 안내 멘트와 함께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연막탄이 터졌다. 예배당은 곧바로 소등(消燈)되어 캄캄해졌고, 연막탄이 뿜어내는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다. 성도들은 침착하게 예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를 시작했다.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주신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까지 총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랐다. 이렇게 대피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흥분하지 않고 질서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 안내위원들의 역할도 컸다. 훈련이긴 했지만 예배 안내위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해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려 모의화재대피훈련에 함께 해 준 성도님들과 예배 안내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이번 모의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한 어린이 성도님은 “소방관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소화기

를 사용하면 불이 나더라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고, 또 다른 성도님은 “이번 모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서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의대피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화재를 알리는 경보사이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제상황 같은 긴박함이 다소 떨어진 것도 조금 아쉽다. 이번 모의대피훈련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앞으로 실시될 안전교육에 참고할 것이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각 캠퍼스를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 함께 참여한 용산소방서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했다. 하나는 비상탈출구를 확보해둘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비상탈출구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지키면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안전은 나로부터 온다. 안전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파악하고, 꼭 횡단보도로 건너는 등 당연한 것들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에 대한 방어는 스스로 해야 한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도 있다.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를 선물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 소방대피훈련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나의 거룩한 사명



박은정 권사
(여의도공동체)

한 장로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대학부 ‘하늘공동체’ 멘토로 섬겨 줄 것을 제안하셨다. 남편과 함께 기도도 준비한 다음 하늘공동체에 갔다.

그곳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또 많은 청년들이 FA선교사로 헌신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단기선교를 나가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홀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새벽에 배도 드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수련회, 철야예배, 크리스마스 블레싱 등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다.

하늘공동체 그룹장, 순장, 순원들과 만났다. 그들과 식사교제를 하고, 전체 그룹과의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전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란을 멀리하고”(살전 4:3).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딤후 4:5).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딤후 2:21~22).

나는 하늘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많은 청

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늘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주셨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길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잠 8:17).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청년들의 눈에서 빛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늘공동체 멘토로 섬기면서 섬김의 자세와 중요성을 배웠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 없는 섬김은 내 의와 열심일 뿐이다.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섬김의 열정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늘공동체에 흘러들어가기로 소망한다. 하늘공동체에 소속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요즘 청년들에게 유혹이 너무 많다. 그들이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하늘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나의 거룩한 사명이다. 이 사명을 붙잡고 하늘공동체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하늘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신앙에세이



신동식 목사
(성북공동체)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다가온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 까? 그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고통이라면 인내해야 한다. 만약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라면 수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념이라는 마을에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 여인은 선지자가 마을에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다. 수념 여인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사실 여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엘리사는 “아들

품에 안게 될 것”이라 축복했고 그 여인은 아들을 얻었다. 이 가정에 뜻하지 않은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불행이 찾아왔다. 아들이 밤에 나가서 두통을 호소하다 어미의 품에서 죽었다. 알 수 없는 큰 어려움, 왜 왔지도 모를 고통이 찾아왔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고 전심으로 매달렸다. 엘리사는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줬다.

수념 여인을 통해 고통의 문제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이는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나 기도제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수념 여인 가정에 부족한 것이 보였다. 아들이 없어 고생했을 여인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여인은 자신의 환경만 보고 기도제목을 제한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도제목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둘째, 이야기(원망)의 상대(대상)를 바꾸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것이다. 이야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숨이 멎었을 때 부모에게 통곡과 슬픔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인은 대처방법이 달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될 것입니다”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갔다. 선지자 옆에 있는 게하시가 달려가서 그녀에게 “아이는 괜찮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오열하며 매달리고 통곡했다. 원망의 대상이 자신이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였다. 누구와 대화할지를 알았던 것이다. 우리도 이야기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가까운 이웃과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면 믿음이 깊어진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위로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했다

(막 6:50-52).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막 6:52).

제자들은 바로 전날 5천명을 먹이시고 12광 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보고도 다음날 새벽 풍랑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수념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남편에게 잘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길을 나섰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름도 없는 수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신다. 보이는 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야기의 대상을 바꾸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저만치 가 있을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헌신과 하나님 나라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마 19:29).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면 그 대가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빌 3:7-9).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최상급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가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가치 있었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같고, 값진 보석을 매매하던 상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

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발견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위하여

셋째, 농부와 상인이 보인 반응의 공통점은 두 번째 반응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농부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을 때 부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웃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했고,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헌신은 억울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매우 가치 있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히 10:33-34).

예수님의 보화의 비유가 그대로 히브리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히 11:25-2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는 그 어떤 것도 억울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소중한 가치를 위한 기쁨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내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억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농부인지, 나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상인인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것에 대한 반응인지, 담대하게 투자할 결단과 용기가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없다면 첫 단계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으로 결단하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헌신한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투자입니다. 휘튼 대학의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에 의해 순교하신 짐 엘리엇의 고백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소중한 만큼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고 이동엽 원장의 건강과 생활



이동엽 원장
(참포도나무병원장, 서초D공동체)

언젠가 아내가 요즘 아이들이 과거 아이들과 비교해서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움직임도 적어지고, 성격도 소심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아파트 문화만 해도 그렇다. 아랫집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서 한창 뛰고 움직여야 할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놀아라”고 말하게 된다. 또 외동아이가 많아지면서 부모가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금만 뛰어도 다칠까봐 조심하라고 하면서 지레 겁을 준다.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끼리 놀다가 조금만 다쳐도 잘못을 따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쫓아다니며 “뛰지 마라, 다칠라”며 조심시키는 아이들이 더 많이 넘어지고 더 크게 다친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쓰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스키 강습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넘어지는 법이다.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는 법이 아니라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면서 몸 쓰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부모가 지나치게 조심시켜 몸을 움직일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 아이들이 적게 움직이면 척추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온다.

청소년 척추 환자 중에서는 말라서 문제인 아이들이 많다. 운동 부족으로 근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척추측만증이나 휜 다리 등은 마르고 근력 없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정도가 심하지만 않으면 기본적인 체력 단련만 해도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어릴 때부터 밖에서 신나게 뛰놀기만 하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할 정도의 근력이 자연스레 단련된다.

안젤라 덕워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기

척추건강과 뛰놀기

개(grit)’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아 목표를 달성하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바로 ‘기개’이다. 기개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 꿈과 미래를 위해 몰고 늘어지는 힘을 가리킨다. 기개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캐롤 드웨그 박사(스탠퍼드 대학)의 ‘성장 마인드 세트’가 많이 언급된다. 대개 ‘고착 마인드 세트’와 함께 언급되는데 성장 마인드 세트는 노력에 의해 자질과 재능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고, 고착 마인드 세트는 자신의 성격이나 재능이 일생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고착 마인드 세트를 가진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상처, 고통을 현재까지 잊지 못하고 작은 시련에도 쉽게 포기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 세트를 가진 사람은 실패의 경험을 즐겁고 가슴 뛰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안젤라 덕워스는 성장 마인드 세트를 가진 사람만이 기개를 키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는 데 필요한 것은 ‘나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성장 마인드 세트나 기개가 결국 어려서부터 뛰노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가 가장 처음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은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 몸을 뒤집고, 걸음마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철봉에 매달리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등 몸을 통한 경험이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몸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놀이를 통해서만 이런 자발적 실패와 극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한 아이들은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좌절도 쉽게 극복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몸뚱이를 던져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와 기개를 활짝 펼칠 기회, 마음껏 뛰놀 기회, 그것을 빼앗은 대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애공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19기 모집 일시: 4월 14일~5월 6일까지(매주 1박2일) 접수: 4월 13일까지(선착순 247명) 회비: 부부 당 300,000원(자녀 동반시 1인당 50,000원 별도) 문의: 이재훈 총무(010-9360-6358)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매 주일 오후 2시, 자유곡1곡 (악보지참) 장소: ACT29홀(신관 카페 내) 대상: 초등 2학년 이상 문의: 010-4775-2403 서빙고 창조과학탐사 기간: 4월 28일~29일(1박 2일) 장소: 삼척, 태백(선착순 30명) 비용: 12만원(초등생 자녀 할인) 신청: 아이스쿨 등록 (타교회환 가능) 문의: 010-7292-2349 CMN 라파엘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4째 주일 오후4시~6시 장소: 서빙고 상담실(지하1층) 대상: 외국인 무료진료 모집: 의사, 치과 의사, 치위생사 각 1명 문의: 박귀을 팀장(010-9990-287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투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공사랑 온누리 축구 선교단 모집 대상: 만지 않는 지인 혹은 가족 등 모임: 연남고등학교 12사~3사 문의: 오명석 총무(010-6470-7131) 한국어교육 봉사자 모집 일시: 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안산 고려인동포교회 문의: 우승엽 팀장(010-4230-1474)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신약학 접수: 4월 23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청예배) / 6부 오후 7:00 (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11:30 / 고등부~오전 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화요일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2층 볼룸C홀 /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 대학청년부 오후 2시 (예니셀 7층) 차세대예배 오전 11시 20분 송도 컨벤시아 1층 / 영아부 107~109호 / 유치부 110~111호 / 꿈땅1부 115호 (오전 9시) / 유년부 113호 / 초등부 115호 / 어린이영어예배 106호 (오후 2시) / 사랑부 103호 프리스페이스 3층 / 중등부 오전 11시 20분 / 고등부 오전 9시 국제예배 제너셀 7층 / 중국어 예배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 예배 오후 2시 주중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20분 / 수요오전여성예배 오전 10시 30분 / 수요저녁부흥예배 오후 7시 40분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리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리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분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텔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트를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13th
개국 13주년

CGNTV 개국 13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러브소나타 10년 1퍼센트의 기적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
지난 10년간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
기적처럼 변화된 일본 교회와
그들을 통해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나눕니다.



99%의 일본인들은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와지마 토타로 상(테너 배재철 매니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온누리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이곳 야마가타까지 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집회 이후에도
지난 10년 동안 아웃리치로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카 세츠야 목사(야마가타 남부교회, 센다이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방송 : 4월 1일 주일 오후 3시 20분 / 재방송 : 4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내레이션 : 배우 최지우

4월 1일 개국 13주년 행사 시 전 캠퍼스에서 드림통을 수거합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